

전남 사고 다발 10곳 선정

귀성길 이곳 운전 조심!

전남도소방본부는 5일 설 명절 귀성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구조·구급 활동을 토대로 선정된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는 여수시 문덕동 라온유 아파트 앞~11호 광장 도로상으로 모두 42건에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삼호읍 LG주유소 앞~삼호중공업 앞 도로가 모두 37건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순천시 조례동 조례 사거리 인근 도로(35건, 29명) ▲여수시 문덕동 문수 삼거리~11호 광장 도로(33건, 38명)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1차아파트~대성동 사거리(32건, 38명) 등의 순이었다.

또 여수시 화동 여수1청사~부영3단지(31건, 51명) ▲광양시 광양읍 남해고속도로 동광양 IC~섬진강 휴게소(29건, 44명) ▲순천시 황전면~황전면 과목리 도로(28건, 38명) ▲순천시 승주읍 호남고속도로 순천 2터널 인근(27건, 32명) ▲여수시 여서동 한재 로터리~여서동 로터리(27건, 30명)도 사고 다발지역에 선정됐다.

/이종행기자 galee@



설을 이틀 앞둔 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은 주부들이 제수용품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내 재래시장은 설을 맞아 반짝특수를 누렸지만 경기 침체로 불황을 면치못하고 있다.

“설 대목이 어딴어~” 한숨의 재래시장

“설날 대목이 어딴어. 물건 값이나 치를 수 있으면 좋겠구먼...”

설 명절을 이틀 앞둔 5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반짝 대목을 맞은 만큼 평소보다는 활기차 보이지만, 상인들의 매출은 예전보다 못하다.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예년에 비해 준 데다 손님이 있더라도 구매량이 적거나 흥정만 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난립과 치솟는 물가도 인해 재래시장의 명절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

“없어서 못 팔았더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 맘 때면 줄서서 사갔는데...”

대인시장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는

백화점·대형 마트에 밀려 특수 사라져 “물건 값이나 줄 수 있을런지...” 시름만

이금숙(여·50)씨는 “최근 인근에 개점한 대형 마트와 버스 노선 변경 등의 영향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70%가 줄었다. 작년에는 가게에 들 여놓은 물건 값이라도 겨우 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정도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1년째 대인시장에서 방앗간을 운

영중인 김말래(여·56)씨는 “지난해에도 최악이었는데 올해는 더 힘들다. 지난해 설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 이르렀는데 올엔 50만원도 못 미친다”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재래시장의 설 대목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대형 마트·백화점 등의 증가와 광주 도심지역 인구 감소, 개발지역 부재 등이 재래시

장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제도를 도입하고 시나 구청에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 뿐이다.

양동시장이나 말바우 시장 등 광주 지역 다른 재래시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인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대적인 시장 시설보수 공사와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고객 끌어 모으기에 나섰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여의치 않다”며 “재래시장 살리기에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a map of the region.

광주시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 투자 유치 전진기지로

광주시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 정보수집과 의견 기능에서 탈피, 투자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확대 개편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으나 성과나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투자유치사무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가 급선무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사무소를 기업체의 정보 수집과 접촉, 마케팅 등 투자유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중국산 조기 국산 둔갑 판매업체 상대 손배소

함평군이 최근 중국산 조기를 국산 글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E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E업체가 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주업체인 것처럼 가짜 스티커를 만들어 포장상자에 붙인

설 연휴 교통사고 줄음 운전이 최다

설 연휴에는 줄음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 설 연휴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설 이틀 전부터 설날까지 총 6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줄음으로 인한 사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리한 핸들조작이 13건, 과속이 12건, 전방주시 태만 6건 순이었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서둘러 고항에 가기 위해 출발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 때문이라고 도로공사측은 분석했다.

결혼 이주여성·자녀 의료비 전액 지원

광주시, 이달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등 의료비가 무료 지원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 여성과 자녀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등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은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를 거쳐 1

천만원까지 지원한다.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진료비 80%를 무료 지원한다.

무료 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광주기독교병원이며,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발방환자) ▲여성결혼 이민자 ▲한국인 노숙자 등이다.

무료 진료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신분증을 갖고 관할 보건소나 사업시행 의료기관,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를 방문, 상담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넓

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진료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의과, 치과,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까지.

임채환 광주시 보건위생과장은 “산업연수생 등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동안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인도 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산 약수 마셔도 된다

설 연휴를 맞아 무등산을 찾는 등반객들은 무등산 약수를 안심하고 마셔도 될 것 같다.

광주시가 최근 무등산 너덜길 등 13개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화사와 피막재 2개소를 제외한 11개소의 약수터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해 5천400만원을 들여 중머리재와 청봉원터 약수터에 광촉매 살균시설을 설치하고 집수정을 교체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나머지 9개소의 약수터에 2억5천만원을 들여 살균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집수정을 교체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

Advertisement for Imperial brand clothing, featuring a woman in a suit and promotional text about a 50% discount.

Advertisement for Mudeung Industrial (무등산업) featuring various home appliances like air purifiers and dehumidifiers.